2005학년도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

제 1 교시

언어추론

계열공통 성명 : _____ 수험번호 : _____ 홀수형 1

○ 수험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수험생은 홀수형 문제지로, 짝수인 수험생은 짝수형 문제지로 응시해야 합니다. 문제지가 자신에게 맞는 문형인지 확인하십시오.

○ 이 문제지는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 수를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와 답을 표기할 때에는 답안지 우측에 있는 '답안지 작성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에 따라 표기하십시오.

○ 시험 시간은 **09:00~10:30 (90분)** 입니다.

1. 낱말의 쓰임새가 바른 것은?

① 불식(拂拭)하다 : 그의 학설이 진리를 불식한 것은 아니다.
② 천착(穿鑿)하다 : 그는 평생 한 가지 일을 천착하였습니다.
③ 명멸(明滅)하다 : 그 사상은 역사 속으로 영원히 명멸해 버렸다.
④ 폄하(貶下)하다 : 상정된 안건은 과반수 미달이므로 폄하하겠습니다.
⑤ 창궐(猖獗)하다 : 문화 산업은 근래에 창궐하는 정보 통신 분야가 이끌고 있다.

2. <보기>의 낱말 짝의 의미를 <예시>와 같이 분석해 볼 때, ㉠과 ㉡에 알맞은 것은?

<예 시>

낱말	의미 특성
처녀	[+여자], [+성년], [-결혼]
총각	[-여자], [+성년], [-결혼]

<보 기>

낱말	의미 특성
선친(先親)	[-여자], [+부모], [-(㉠)]
(㉡)	[-여자], [+부모], [+(㉠)]

㉠	㉡
① 생존	자친(慈親)
② 생존	엄친(嚴親)
③ 사망	자당(慈堂)
④ 사망	가친(家親)
⑤ 사망	빙장(聘丈)

3. 신체 부위와 관련되어 있는 <보기>의 ㉠~㉤을 신체의 위에서 아래의 순서로 나열한 것은?

<보 기>

㉠ 애를 태우다
㉡ 비견할 만하다
㉢ 슬하를 떠나다
㉣ 오금이 저리다
㉤ 부아가 치밀다
㉥ 구설수에 오르다
㉦ 초미의 관심사이다
㉧ 미주알고주알 캐묻다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⑤ ㉦ - ㉥ - ㉡ - ㉣ - ㉧

4.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① 현대 연극은 1902년 최초의 실내 극장인 협률사와 1908년 이를 계승한 극장 원각사의 설립을 그 단초로 하여 싹틔우기 시작하였다.
② 인간이 대화할 때 듣는 말소리는 분절성을 띤 규칙 체계로서의 음운이 아니라, 자연 상태의 연속적 속성을 지닌 물리적 음성을 듣는다.
③ 일반적으로 동물과 식물의 차이점은 동물은 동적인 물체, 즉 이동할 수 있는 존재인데 이동은 활발한 운동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④ 과학 기술이 사회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중요해지면서 과학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과 과학 기술을 보는 철학적 관점도 크게 변했다.
⑤ 오늘날 각 사회 계층은 정치적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실질적으로 권력 분배의 역할을 시킴으로써 자신들이 속한 집단을 유리하게 이끈다.

5. <보기>에서 밑줄 친 부분의 표기가 맞는 것끼리 묶인 것은?

<보 기>

ㄱ.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ㄴ. 예천 댁이 싯퍼런 얼굴로 뛰어들었다.
ㄷ. 객쩍은 말들에 신경을 쓰지는 마세요.
ㄹ. 그녀는 이가 참 골라서 웃을 때 더 예뻤다.
ㅁ. 위험을 무릎쓰고 실험을 강행할 필요는 없다.
ㅂ. 이제 와서 넉두리를 해 봐야 소용없는 일이었다.

① ㄱ, ㄴ, ㅂ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ㄷ, ㅁ, ㅂ
⑤ ㄹ, ㅁ, ㅂ

[6~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주변에서 의사들이 불친절하다고 불평하는 소리, 한 번쯤 들어 보셨죠? 그런 소리 들으면 우선 사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항변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날마다 수많은 환자들을 상대하다 보면 친절한 말씨에 신경 쓸 여력이 없죠? 예, 맞습니다. 당연히 의사는 환자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치료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자만이 아니지요. 환자의 보호자들, 간호사나 동료 의사들, 기기를 다루는 기사들……. 환자의 병을 다루는 의사라면, 어디서든 이들과 이야기하고 협력해야 하는데, 이것은 결코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환자의 병만 정확히 설명하면 될까요? 간호사에게는 지시만 하면 될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사람을 상대로 말을 하다 보면, 자신이 말한 내용이 다른 뜻으로 전해지거나 의도하지 않았던 반감을 불러일으킨 경험, 여러분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한 오해나 반감 때문에 순조로울 수 있었던 환자의 치료가 어려워지거나, 진료에 필요한 최선의 준비가 마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교육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라면 누구나 의사소통에 대한 훈련과 연수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의사로서의 지식과 전문적 조언이 무신경한 말투에 가려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할 일입니다.

6. 위 강연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질문을 던져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② 공감을 유도하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③ 주장을 앞에 두어 논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④ 문제 상황을 부각시켜 호소력을 높이고 있다.
⑤ 실천 방안을 제시하며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7. 위 강연자에게 질문을 하고자 할 때, <보기>의 조건을 가장 잘 만족시키는 것은?

<보 기>

○ 강연의 요점을 정리하고 질문한다.
○ 질문의 초점을 분명히 한다.
○ 공격적이거나 논점에서 벗어나는 질문을 삼간다.

① 의사소통 교육이 중요하다는 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의료 행위도 서비스업의 일종이죠.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의사소통보다 더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② 선생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의사들이 환자와 간호사에게 정중하게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③ 선생님께서는 결국 의사소통에 대한 훈련과 연수를 강조하셨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으면 공허한 주장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 마련되어 있다면 좀더 자세히 안내해 주실 수 있습니까?
④ 오늘 강연을 듣고 반성이 되는 점도 있지만, 사실 평소의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한두 번의 연수를 받는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에게 화려하고 친절한 말솜씨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의사에게 중요한 덕목은 뭡니까?
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사소통은 그야말로 두 사람 이상의 상호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의 일방적인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의사만 일방적으로 의사소통의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최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결국 문제는 여덟째 행 셋째 글자와 일곱째 글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목에 대한 판독 결과에 따라 비문의 다른 대목도 합의가 쉬워질 텐데, 지금까지 나온 견해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토론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아마 하실 말씀은 다 했다고 봅니다만, 혹시 김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김 교수: 사회자께서 제게 기회를 안 주실까 걱정했습니다. 음, 이쯤 되면 제가 드릴 말씀도 오직 하나일 것 같습니다. 저보다는 최 교수께서 먼저 선입견을 버리고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사회자: 네, 참 곤혹스럽습니다만, 사실 이런 상황에 처하고 보니 제가 발표가 아니라 사회를 맡게 된 게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 견해가 나왔지만, 우리 학계의 현주소에 대한 의미 있는 점검이 이루어졌다는 점에는 다들 동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이만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8. 학술 토론의 앞 부분을 지켜보지 않은 청중이 위 내용으로부터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① 김 교수와 최 교수는 자신들의 학문적 견해를 충분히 개진하지 못하였다.
② 최 교수의 발언에는 김 교수에 대한 요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③ 사회자는 거론된 문제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갖추지 않았다.
④ 문제의 두 글자를 제외하고는 해석의 일치를 보았다.
⑤ 사회자는 전반적으로 최 교수의 견해에 동조하였다.

[9~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서는 어떻게 유발되는가? 20세기 초 심리학자 제임스는 정서란 자율 신경계에 의한 생리적 각성에 기초한다는 이론을 제안하였다. 인간의 신체에 일어나는 특정한 생리적 각성이 그에 연결된 특정 정서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1962년 샤흐터와 싱어는 정서가 유발되기 위해 생리적 각성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생리적 각성이 기계적으로 특정 정서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성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즉 생리적 각성을 일으킨 맥락에 대한 해석이 정서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동일한 생리적 각성도 개인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정서 반응을 유발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샤흐터와 싱어는 18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실험을 수행하였다. 우선 피험자들을 세 집단으로 나누어 A, B 두 집단에게는 생리적 각성을 일으키는 에피네프린 주사를 맞게 하고, C 집단에게는 생리적 각성을 야기하지 않는 식염수 주사를 맞게 하였다. 그리고 그 중 B 집단에게만 그 주사 때문에 심장 박동과 호흡이 빨라지는 등의 생리적 각성이 일어날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물론 실험의 진의를 숨기기 위해, 세 집단의 피험자들 모두에게 그 주사액의 성분은 복합 비타민이며 이 실험은 비타민이 시각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짓으로 말해 주었다.

주사를 투여한 이후, 피험자들은 각 집단별로 (가)와 (나) 두 그룹으로 나뉘어 그들과 동일한 주사를 맞은 것으로 위장한 실험 협력자와 함께 실험실로 인도되었다. 그리고 피험자와 실험 협력자 모두에게 비타민과 시각 효과에 대한 질문지에 답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가) 그룹의 실험 협력자는 피험자와 같이 있는 동안 행복한 것처럼 행동하였고, (나) 그룹의 실험 협력자는 몹시 화가 난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들의 행동은 피험자들에게 생리적 각성을 일으킨 맥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었다. 실험자는 관찰 창(窓)을 통해 피험자들의 정서 반응 양상을 기록하였다. 실험 요인들의 조작에 따른 각 집단의 정서 반응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났다.

<표> 실험 협력자의 행동에 대한 피험자의 정서 반응

	A 집단	B 집단	C 집단
(가) 그룹	㉠ 점차 행복해 함	㉢ 정서 반응 없음	㉤ 정서 반응 없음
(나) 그룹	㉡ 점차 화를 냄	㉣ 정서 반응 없음	㉥ 정서 반응 없음

A 집단 : 에피네프린 주사를 맞고, 약물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지 못한 집단.

B 집단 : 에피네프린 주사를 맞고, 약물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은 집단.

C 집단 : 식염수 주사를 맞은 집단.

(가) 그룹 : 행복한 것처럼 행동하는 실험 협력자와 함께 있었던 그룹.

(나) 그룹 : 화가 난 것처럼 행동하는 실험 협력자와 함께 있었던 그룹.

9. 샤흐터와 싱어의 실험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험자에게 실험 목적을 숨긴 이유는 그 정보가 피험자에게 미칠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이다.
② 에피네프린 주사액의 효과를 알려 주지 않은 집단이 필요한 이유는 생리적 각성에 의해서만 정서 반응이 유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③ 식염수 주사를 맞은 집단이 필요한 이유는 주사액 성분과 관계없이 주사를 맞는 것만으로도 정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이다.
④ 실험실에서 질문지를 제공하고 피험자에게 응답하도록 요구한 이유는 질문지의 내용이 피험자의 정서 반응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⑤ 피험자와 동일한 주사를 맞은 것으로 위장한 실험 협력자를 두 그룹으로 나눈 이유는 실험 협력자의 정서 상태에 의해 피험자의 정서 반응이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10. <표>의 실험 결과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은 생리적 각성만으로는 정서 반응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② ㉢, ㉣과 ㉤, ㉥은 실험 협력자의 정서 상태에 대한 피험자의 해석 차이만으로는 피험자의 정서 반응이 유발되지 않는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③ ㉠, ㉢, ㉤은 주사액의 효과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 여부와 생리적 각성이 함께 피험자의 정서 반응 유발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④ ㉠, ㉡과 ㉤, ㉥은 실험 협력자의 정서 상태에 대한 피험자의 해석 차이와 생리적 각성이 함께 피험자의 정서 반응 유발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⑤ ㉠, ㉤과 ㉡, ㉥은 주사액의 효과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 여부와 실험 협력자의 정서 상태에 대한 피험자의 해석 차이가 함께 피험자의 정서 반응 유발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11. 제임스의 정서 이론에 따를 경우, 위 실험에서 나타났어야 할 결과는?

① A 집단과 B 집단은 실험 협력자의 태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정서 반응을 보여야 한다.
② A 집단과 C 집단은 실험 협력자와 동일한 정서 반응을 보여야 한다.
③ B 집단과 C 집단은 동일한 정서 반응을 보여야 한다.
④ C 집단은 실험 협력자의 태도에 따라 상이한 정서 반응을 보여야 한다.
⑤ A, B, C 집단 모두 각각의 실험 협력자가 보이는 것과 동일한 정서 반응을 보여야 한다.

[12~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 부분의 줄거리〕 '나'는 유부남인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 둘은 함께 외국으로 떠나려 한다. '나'는 마지막으로 부모를 만날 생각으로 집에 들렀다가, '당신'과의 약속을 어기고 떠나지 않기로 마음먹는다.

(가) 당신, 저를, 용서하세요.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제 말이 모두 당신에게 오리무중일 것만 같으니. 점촌 아주머니를 혼자 살게 한 점촌 아저씨의 그 여자, 그 중년 여인으로 하여금 울면서 에어로빅을 하게 만든 그 여자…… 언젠가, 우리 집…… 그래요, 우리 집이죠…… 거기로 들어와 한때를 살다 간 아버지의 그 여자…… 용서하십시오…… 제가…… 바로, 그 여자들 아닌가요?

사랑하는 당신.

노여워만 마세요. 저는 그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낀 타인에 대한 사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여자가 남겨 놓은 이미지는 제게 꿈을 주었습니다. 제가 더 자라 학교에 다니게 되었을 때, 새 학기가 시작되고 나면 담임 선생님은 개인 신상 카드를 나눠 주며 기록을 해 오라 했습니다. 그 개인 신상 카드 어느 면에 장래 희망을 적어 넣는 칸이 있었지요. 장래 희망. ㉠저는 그 칸 앞에서 오빠 볼펜을 손에 쥐고 우두커니 앉아 있곤 했어요.

……그 여자처럼 되고 싶다……

이것이 제 희망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집에 와서 심어 놓고 간 일들을 구체적으로 간추려서 뭐라고 써야 하나? 이것이 고민스러워 우두커니 앉아 있곤 했던 것입니다. 끝끝내 그걸 간추릴 단어를 저는 그때 알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처럼 어느 때는 은행원, 어느 때는 학교 선생님, 어느 때는 발레리나라고 써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그렇게 표현되는 그때그때의 희망들은 모두 그 여자를 지칭하고 있었습니다.

(나) 그…… 여자, 그 여자는 왜…… 다시 집을 나갔을까요?

㉡당신을 믿어요.

그 여자가 아버지께 한 말 중에 지금껏 기억에 남는 말은 유일하게 이 한 마디입니다. 그 여자의 당신이었던 아버지를 믿었으면서, 그 여자는 왜 그렇게 도망치듯 집을 나갔을까요. 어머니 때문이었을까요? 그 여자는 어머니께서 잠시 다녀간 다음 날 집을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께서 그 여자에게 무슨 대거리를 한 것도 아니에요. 어머니는 오셔서 그 여자가 업고 있던 막내 동생을 받아 안았을 뿐입니다. 지치셨던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어머니께서 견디는 방법이셨는가? 어머니는 그저 말없이 아이를 받아 안고서 젖을 먹이셨어요. 어머니 젖은 퉁퉁 불어서 푸른 힘줄이 불끈불끈 솟아 있었습니다. 어린애가 한참을 빨고 나니까 그 힘줄이 가셨습니다. 봄볕이 내리쬐는 그 봄날에 마루에 앉아 젖 먹이는 어머니와 그 곁에 서서 그저 마당만 하염없이 내려다보고 있는 그 여자라니. 어머니는 젖을 빨다 잠이 든 어린애를 포대기에 싸서 마루에 눕혀 놓고, 토방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제게로 오셨어요. 그때, 제 손에 그 여자가 만들어 준 설기떡이 쥐어져 있었던가 말았던가. 그 풍경을 생각하니 눈물이 번지는군요. 어머니께서는 한 칸씩 위로 채워진 제 윗옷 단추를 다시 끌러서 제대로 채워 주시고, 벗어 놓은 제 신발에 담긴 흙 부스러기를 털어 내주시고서는 물끄러미 제 눈을 들여다보시더니 다시 가셨어요. 삼십 분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지요. 단지 그뿐이었는데 그 다음 날 그 여자는 나갔습니다. 뒤란 마당까지 깨끗이 쓸고 난 다음이었어요. 실에 꿴 감꽃을 주렁주렁 목에 매달고 있는 제 손을 그 여자는 잡아당겼어요.

점심상은 방에 차려 놨어. 동생은 방금 잠들었구. 깨어나면 기저귀 속에 손 넣어 봐서 오줌 쌌거든 얼른 갈아 줘…… 그러구 아버지가 날 찾거든 모른다고 해라. 언제 나갔는지 모른다고 해, 알았지?

어느새 그 여자는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입었던 저고리와 치마로 바꿔 입고 있더군요. 분을 옅게 바르고 있어서 얼굴빛이 더욱 뽀얬습니다. 처음 우리 집에 온 날 저를 어지럽게 하던 그 은은한 향내가 그 여자에게서 다시 났어요. (중략)

그때 제 눈에 띈 게 칫솔통이었습니다. 그 속엔 그 여자의 노란 칫솔이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키를 세워 그 칫솔을 꺼냈어요. 그리고 마구 달려갔습니다. 마을을 빠져나가는 길은 큰길과 소롯한 수리조합 둑길이 있었는데, 그 여자는 수리조합 길로 걸어가고 있더군요. 저는 정신 없이 뛰어 그 여자 뒤에 섰어요. 제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음직도 한데 그 여자는 그저 여민 치마 한 끝을 싸쥐고 뒷모습만 보이더군요. 그 여자 뒤에 바짝 서서 그 여자의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때서야 그 여자는 돌아다봤습니다. 아, 그때 그 여자의 얼룩진 얼굴이라니. 눈물에 분이 밀려나서 그 여자 얼굴은 형편없었어요. 칫솔을 내밀자 그 여자는 웃을락 말락 했습니다. 그 여자는 내 손에 있는 칫솔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손을 그대로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선 제 눈을 깊게 들여다봤어요.

나…… 나처럼은…… 되지 마.

(다) 사랑하는 당신!

……여기에 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 마을은 저를, 저 자신을 생각하게 해요. ㉣자기를 들여다봐야 하다니요? 싫습니다! 저는 지쳤어요. 그 여자가 떠나던 날, 그 여자에게 칫솔을 건네주던 때, 그때 저는 그 여자와 무슨 약속인가를 했다고, 지금이 그 약속을 지킬 때라고…… 이 생각을 당신이 있는 그 도시에서 제가 어떻게 해 낼 수 있었겠어요. 그 여자가 그때 떠나 주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됐을까? 어머니와 우리 형제들은? 그 여자가 떠나 주지 않았어도 과연 우리 가족들이 지금 이만한 평온을 얻어 낼 수 있었을까? 여기에 오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여자가 우리 집을 떠나고 나서 아버지는 오랫동안 술에 취해 계셨습니다. 아무데나 마구 토해서 부축할 수도 없었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환했던 때는 그 여자가 있던 그 시절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당신, ㉤그것만이 우리 삶의 다라고 여길 수 없는 불편한 부분이 이 마을에는 흐르고 있어요. 여기에 오지 않았으면 모를까, 이미 저는 그 불편함에 의해 끔찍해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여기에 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것밖에 달리 제 마음을 어떻게 쓴단 말인가요. 양잿물을 들이마신 것같이 쓰라리게 당신이 그리워요.

- 신경숙, 풍금이 있던 자리 -

12.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현재 상황과 과거 회상을 교직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
② 특정한 사물에 대한 세밀한 묘사를 통해 애상적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③ 편지투를 활용하여 인물의 고민스러운 심경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
④ 말줄임표와 쉼표는 인물의 심적 갈등을 드러내는 표지로 쓰이고 있다.
⑤ 인물의 심리 변화에 '이 마을'과 '그 도시'의 공간적 대립이 작용하고 있다.

13. 위 글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진술로 적절한 것은?

① 어린 '나'는 '그 여자'에게 매혹을 느꼈기 때문에 그녀가 떠나는 것을 막으려 했다.
② '당신'은 과거의 '아버지'와 같이 사랑보다 현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③ '어머니'는 무던한 성격이어서 '아버지'의 외도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④ '그 여자'는 '아버지'를 떠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별다른 회한이 없었다.
⑤ '나'는 '아버지'가 '그 여자'를 진실로 사랑했다고 믿고 있다.

14. 위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의 의미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자신의 꿈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닫게 됨
② ㉡: 어려움이 있다 해도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견뎌 내겠다는 다짐
③ ㉢: '그 여자'에게 아내의 지위 대신 어머니의 지위를 내세우는 것
④ ㉣: '당신'과의 사랑을 반성하는 데 따른 고통이 매우 크다는 것
⑤ ㉤: 상처가 있다 해도 소중히 가꾸어 온 가족 간의 평온한 관계

15. 위 글의 '나'가 '그 여자'에게 편지를 쓴다고 했을 때, 위 글의 주제 의식과 가장 가까운 것은?

① 당신도 소중한 가정을 이루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와의 사랑은 언제나 당신의 마음속에 아련한 추억으로 영원히 남아 있겠지요.
② 당신의 섬세하고도 여성다운 마음씨는 제가 가장 닮고 싶어했던 것입니다. 비록 사랑은 이루기 어려워졌지만, 당신이 준 소중한 꿈은 그대로 간직하겠습니다.
③ 당신과 옛날에 한 약속을 힘들게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이에게 아픔을 주고 제 마음도 이토록 아픈 것을 생각하면, 저의 선택이 옳았는지 의구심이 드는군요.
④ 당신이 떠났던 것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킨 것이었습니다. 사랑이란 도덕에서 비롯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팠던 제 사랑도 진정한 사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⑤ 당신이 우리 집을 떠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위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도 견디기 힘든 마음의 짐으로 내내 남았을 거예요.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살아 있는 세포는 DNA에 기록된 유전 정보에 의해,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진 가장 정교한 분자 구조물인 단백질을 만들어 낸다. 오늘날 과학 기술은 미생물의 유전자 정보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렀고, 최근의 연구 결과는 생존에 필요한 것을 합성하는 이 생명의 메커니즘이 미래의 전자 소자를 만드는 데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최근 미국의 한 대학 연구 팀은 로켓 모양의 바이러스인 박테리오파지(bacteriophage, 폭 7nm, 길이 800nm) 개체들 중에서, 꼬리가 반도체 물질에 강하게 점착되는 것들을 반복적인 유도 진화 과정을 통해서 얻어 내고, 이것에 반도체 입자를 포함한 선구 물질(precursor)을 부어 주면, 꼬리 부분을 구성하는 짧은 단백질인 펩티드에 의해 지름 2~3nm의 점 모양 결정인 양자점(quantum dot)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바이러스의 DNA에서 이 펩티드를 합성하는 유전자 정보를 해독하고, 이를 다시 몸통 부분의 단백질을 합성하는 유전자에 대치시키면, 몸통이 이 펩티드로 구성된 바이러스 변종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 바이러스에 선구 물질을 부어 주면 몸통의 외막(coat)을 따라 반도체 결정막이 형성되는데, 이 상태에서 고온으로 바이러스 몸통을 연소시키면 남아 있는 반도체 결정막은 10nm 굵기의 나노 선(nano wire)이 된다. 연구 팀은 머지않아 이 펩티드 외막을 가진 '전선 바이러스'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나노 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전선 바이러스를 전자 소자 제조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특정 위치에 잘 부착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먼저 전선 바이러스를 얻는 방법과 같이 유도 진화와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전선 바이러스의 머리와 꼬리 부분이 금에 잘 달라붙을 수 있도록 변형시킨다. 이렇게 변형된 바이러스를 이것의 몸체 길이 정도 떨어진 두 금 전극이 설치된 기판(wafer)에 넣어 주면, 바이러스의 머리와 꼬리 부분이 두 전극에 각각 달라붙게 된다. 여기에 나노 선을 얻는 과정을 적용하면 두 전극을 이어 주는 반도체 다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때 두 전극 사이의 절연물 속에 또 다른 전극이 묻혀 있으면, 전체 구조물은 반도체 다리에 의한 폭 10nm의 전도 채널을 가지는 완전한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가 된다. 이 트랜지스터는 대규모 집적회로를 만드는 기본 소자가 될 수 있다.

이처럼 바이러스가 만들어 내는 결정체들은 현재의 전자 소자 제조 기술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균질하고 정교하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최근 들어 나노 전자 소자 분야에서는 미생물을 이용하는 제조법에 대해 활발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연구들은 궁극적으로 유전자 조작을 통해 프로그램된 미생물들이 스스로 완전한 소자를 만들어 내는 ㉠'생화학적 춤'을 얻는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다. 위에서 소개한 바이러스를 이용한 나노 소자 제조 방법은 박테리아 내에서만 증식이 가능한 바이러스를 매개체로 하기 때문에 생화학적 춤으로 완성시키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 그러나 세포의 유전자는 훨씬 더 다양하고 복합적인 명령을 실시간으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바이러스 대신 살아 있는 세포를 이용하면 복잡한 구조물을 세포의 활동만으로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아가 소자를 만들어 내는 것뿐 아니라 소자의 검사와 수리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16. 위 글의 내용을 가장 잘 드러내는 제목과 부제는?

① 바이오 시대의 도래
- 신기술의 첨병, 바이러스

② 나노 세계로의 초대
- 나노 와이어의 제조와 이용법

③ 바이오 트랜지스터의 출현
- 나노 트랜지스터 제조 기술의 실용화

④ 생물학과 나노 공학의 만남
- 바이러스를 이용한 전자 소자 제조

⑤ 나노 회로 설계의 새로운 지평
- 고성능 소자를 얻는 첨단 기법

17. 유전자가 조작된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실험을 하려고 한다. <보기>의 실험 절차를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보 기>

ㄱ. 기판을 고온으로 가열한다.
ㄴ. 기판 위에 변형된 전선 바이러스를 넣어 준다.
ㄷ. 기판 위에 금 전극들을 설치하고 절연물을 채운다.
ㄹ. 기판 위에 반도체 성분을 포함한 선구 물질을 부어 준다.

① ㄱ, ㄹ, ㄷ, ㄴ
② ㄷ, ㄱ, ㄹ, ㄴ
③ ㄷ, ㄴ, ㄹ, ㄱ
④ ㄹ, ㄴ, ㄷ, ㄱ
⑤ ㄹ, ㄷ, ㄱ, ㄴ

18.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회로를 검사하고 수리하도록 프로그램된 미생물의 활동 과정
② 미생물들의 자발적인 활동에 의한 나노 전자 소자의 구조체 형성 과정
③ 살아 있는 세포에 의해 실시간으로 수행되는 복합적인 반도체 결정의 형성 과정
④ 주어진 생존 환경에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미생물을 유도 진화시키는 과정
⑤ 비생물학적 반도체 제조 기술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한 조직을 얻는 과정

[19~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은 직립 보행을 했을 때부터 요통에 시달렸을 것이다. 고대 그리스나 이집트 문헌에도 요통 치료 처방이 남아 있다. 현재에도 요통은 매우 흔한 질환으로 성인의 80%가 일생 동안 한 번 이상은 겪게 된다고 한다. 한창 일할 나이의 젊은이들이 병가(病暇)를 내는 경우, 상당 부분은 상기도 감염(上氣道感染)에 의한 질환, 흔히 감기라고 부르는 증세 때문인데, 요통 역시 그에 못지않은 병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1년간 요통으로 인한 일상 생활의 제약 일수는 평균 23.5일이고 노동 공백 일수는 약 8일이라고 한다.

요통은 증상이면서 병명이다. 일시적인 통증으로부터 현대 의학으로도 어쩔 수 없는 질환에 이르기까지 요통의 유형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따라서 요통이 발생하는 원인 또한 여러 가지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연령은 요통과 깊은 관계가 있다. 요통은 30대에서 50대에 주로 발생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증세가 심해지고 그로 인한 생활의 제약도 커진다. 무거운 물건을 많이 나르거나 반복적인 일을 하는 작업 요건은 요통과 관련이 깊다.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 역시 요통의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만성 요통으로 이행된 환자들은 정신 장애를 겪게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런가 하면 통증을 호소함으로써 관심을 촉구하고자 하는 보상 심리에 의해 실제로 요통을 느끼는 경우도 있으므로 환자가 처한 사회·문화적 환경도 중요한 발생 원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요통에 대한 치료 방법 역시 다양하다. 대체로 단순 요통 환자는 특별한 치료 없이도 4주 이내에 증상이 호전된다. 따라서 이런 환자들을 위해서는 증상이 호전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보존 치료를 시행한다. 침상에 누워 안정을 취하는 것, 찜질이나 핫팩을 이용하여 열 치료를 하는 것, 통증을 줄이기 위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투여하는 것 등은 보존 치료의 일종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방법은 강한 허리를 갖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라고 하겠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운동이다. 그런데 흔히 "다른 사람의 요통은 몰라도 내 요통은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여 운동을 권하는 의사의 처방에 따르지 않는 환자들도 있지만, 운동 처방은 6개월 이상 꾸준히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충분한 보존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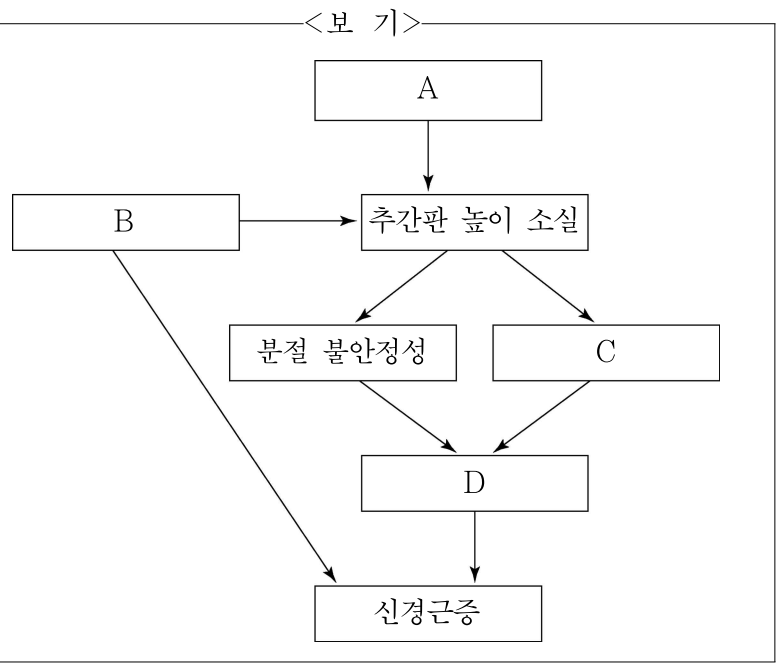
(가) 보존 치료나 수술 치료를 위해서는 척추의 구조 및 요통의 진행 과정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 척추는 추체(椎體)라 부르는 뼈가 여럿 이어진 구조를 갖고 있다. 추체와 추체 사이에는 우리가 흔히 디스크라 부르는 추간판이 있어 척추에 운동성과 안정성을 제공한다. 만성 요통은 추간판의 탈출이나 추간판 조직의 생화학적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이로 말미암아 추간판의 높이가 소실되어 척추 분절이 불안정해지거나 주위의 뼈에서 비정상적인 뼈, 즉 골극(骨棘)이 성장하게 된다. 이로 인해 척추로부터 빠져나오는 신경근이 지나가게 되는 추간공(椎間空)이 좁아져서 신경근이 눌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발생한 신경근증은 해당 신경 지배 영역에 감각 이상 및 방사통을 일으킨다. 물론 추간판 조직의 탈출은 직접적으로 신경근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척추 구조물 안에서 어느 부위가 압박되고 있으며 그 정도가 어떠한지에 따라 요통의 치료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19. 위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알 수 없는 것은?

① 수술 치료는 보존 치료보다 효과가 크다.
② 직업에 따라 요통 발생 빈도에 차이가 있다.
③ 사람은 신체 구조상 누구나 요통에 걸릴 수 있다.
④ 요통은 환자에 따라 정신과적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⑤ 보존 치료에는 인간의 자연 치유 능력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

20. (가)를 읽고 <보기>와 같이 도시할 때 A~D를 바르게 배열한 것은?

<보 기>



	A	B	C	D
①	추간판 변성	추간판 탈출	추간공 협착	골극 성장
②	추간판 변성	추간판 탈출	골극 성장	추간공 협착
③	추간판 탈출	골극 성장	추간판 변성	추간공 협착
④	추간판 탈출	추간공 협착	골극 성장	추간판 변성
⑤	추간판 탈출	추간공 협착	추간판 변성	골극 성장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세기 초 칸딘스키는 자신이 추구해 온 추상화 운동을 보완할 새로운 사실주의의 출현을 예견했다. 사실적 회화는 대상을 재현한다. 현대 추상화가들에 의해 선, 면, 색채 같은 순수한 형식만으로도 그림이 성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보편화되기 이전의 모든 그림은, 그 내용이 꽃이든 전쟁의 이야기든 세계를 묘사한 재현적 그림이었다. 하지만 그림에서의 묘사는 그 대상이 무엇이든 또한 형식을 동반한다. 예를 들어, 장미 꽃잎의 붉은색과 윤곽선, 그것과 항아리의 흰색 면과의 대조 등이 작품의 형식적 측면들이다. 그러므로 그림에서 추구해야 할 미(美)란 재현적 내용과 형식의 균형이라고 믿었던 아카데미의 화가들은 재현과 형식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균형을 통한 미의 달성이라는 미술의 이상은 더 이상 칸딘스키 같은 예술가들의 목표가 아니었다. 그는 오히려 재현과 형식은 각각의 길을 가게 될 것이며, 그래서 형식만을 드러내는 추상 예술이 있는 것처럼, 실제의 대상 그대로를 드러내기 위해 형식에 대한 관심을 최소화하는 예술도 출현할 것을 예언했다.

드러낸다는 것은 베일을 벗긴다는 뜻이다. 칸딘스키에 의하면 실재를 가리는 것은 실재에 대한 우리의 친숙함이다. 우리는 세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진정으로 세계를 보려고 애써 노력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우리는 매일의 일상에서 신발과 마주치지만, 신발이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한 우리가 신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우리가 신발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새삼스럽게 본다면, 그 형태나 낡은 가죽의 재질, 닳아 버린 뒤축 등 이 모든 것이 그 자체의 '미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드러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세계와의 관련으로부터 자유로워야만 한다. 우리에게 세계로부터 한발 물러서는 발걸음을 내딛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술의 과제인데, 칸딘스키는 전통적인 예술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이러한 과제가 충족될 수 없다고 믿었다.

사람들이 자신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을 경이로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추상이다. 추상은 예술이 가지고 있는 드러내는 힘을 최대로 고양하기 위해 재현적 요소를 최소로 줄인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그려졌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순수 형식으로 이루어진, 새롭게 창조된 실재로서의 예술 작품을 본다. 그러나 예술가는 추상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사물 자체가 스스로 말하게끔 시도할 수 있다. 그렇게 시도된 미술은 ㉠그것이 과일을 그렸든 풍경을 그렸든 근본적으로 초상화이다. 대상의 실재를 드러낸다는 의미에서의 객관성, 보잘것없는 것에서 미적인 중요성을 발견하는 것, 이것들이 바로 칸딘스키가 말하는 새로운 사실주의의 특성이다.

사실주의는 자연에 충실하라고 가르치지만, 새로운 사실주의는 엄밀한 재현을 거부할 것이다. 드러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려지는 대상은 변형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세계에 너무나 깊숙이 개입되어 있어서 실재를 보는 데에 필요한 거리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오히려 그와 같은 변형을 실재로부터의 이탈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익숙한 관점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칸딘스키가 말하는 새로운 사실주의는, 사실주의라는 명칭의 오용이 된다. 실재를 꿈으로 변형시켰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러한 변형이야말로 인간의 눈을 실재에로 열어 놓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때 전환은 실재로부터의 전환이 아니라 실재를 향한 전환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21. 위 글의 중심 내용을 표와 같이 정리할 때,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공통점	차이점
추상화 운동과 새로운 사실주의	(가)	그림 속에 재현적 형상이 등장하는지 여부
사실주의와 새로운 사실주의	그림 속에 재현적 형상이 등장한다.	(나)

	(가)	(나)
①	그림의 목표가 형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림 속에서 친숙한 사물이 발견되는지 여부
②	그림의 목표가 실재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림이 작가의 주관적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 변형되는지 여부
③	그림의 목표가 보잘것없는 사물에서 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림이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는지 여부
④	그림의 목표가 대상에 대한 경이로운 주목의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림 속에 등장한 재현적 형상이 변형되는지 여부
⑤	그림의 목표가 세상과의 관련 속에서 드러나는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림이 세상과 관련 없이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지 여부

22. 문맥으로 보아 알 수 있는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아름답게 꾸민 대상을 그리기 때문에
② 배경보다는 대상을 집중적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③ 묘사된 대상 그 자체에 대한 주목을 요구하기 때문에
④ 그림을 수단으로 해서 대상을 확인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⑤ 우리 눈에 보이는 대상의 친숙한 외관을 그대로 묘사하기 때문에

23. 새로운 사실주의의 입장에서 ㉡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은?

① 화가의 임무는 꿈의 세계를 형상화하는 것이지 평범한 현실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다.
② 보이는 대로의 자연에 충실하라는 것도 하나의 예술적 이상에 따른 기획이다.
③ 예술은 항상 무언가에 관한 것이므로, 재현적 내용을 포기할 수는 없다.
④ 친숙한 사물에 대한 왜곡 없이는 작가의 정서를 드러낼 수 없다.
⑤ 극단적이지 않았을 뿐, 예술은 언제나 형식을 추구해 왔다.

[24~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장보고(張保皐)와 정년(鄭年)은 신라 사람들로서 둘 다 싸움을 잘했는데, 그 용맹함과 기세를 겨룬다면 장보고가 약간 미치지 못했으나, 정년은 장보고를 형으로 불렀다. 장보고는 나이로, 정년은 무예로 우위에 있어 매사에 의견이 맞지 않았고, 서로 지려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당(唐)에 가서 무령군소장이 되었는데, 말달리며 창을 쓰는 데는 당할 사람이 없었다.

그 뒤 장보고는 본국으로 돌아와 대왕을 뵙고 말하기를, "중국을 두루 다녀 보니 우리 나라 사람들이 노비가 되어 있는지라, 바라옵건대 저에게 청해(淸海)를 지키게 하신다면 도적들로 하여금 우리 백성을 중국으로 약탈해 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왕이 장보고에게 군사 만 명을 주니, 이후로는 바다에서 신라 사람들을 사고 파는 일이 없어졌다.

장보고는 이렇듯 귀하게 되었으나, 정년은 관직을 떠나 굶주리고 헐벗은 채 사수(泗水)의 연수현(漣水縣)에 있었다. 하루는 정년이 연수현의 수비 장수 풍원규(馮元規)에게 말하였다.

"나는 우리 나라로 돌아가서 장보고에게 의지해 살아야겠다."

"네가 장보고에게 믿는 바가 무엇이기에, 어찌하여 돌아가 (가) 그의 손아귀에 죽으려 하는가?"

"굶주리고 헐벗어 죽느니보다는 창칼 아래 죽는 것이 장쾌할 뿐더러, 게다가 고향에서 죽을 수 있지 않은가?"

마침내 중국을 떠나 장보고에게 찾아가 술을 마시면서 마음껏 즐기는데, 미처 술자리가 다하기도 전에 왕이 시해되고 나라가 어지러우며 임금조차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장보고는 군사 5천 명을 정년에게 나누어 주더니 정년의 손을 붙잡고 울면서 말하기를, "그대가 아니면 이 환란을 평정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에 정년이 도성에 들어가 반역자를 처단하고 왕을 세웠다. 왕이 장보고를 불러 재상으로 삼고, 정년으로 하여금 그를 대신해 청해를 지키게 하였다.

천보(天寶) 연간 안녹산(安祿山)의 반란 때, 삭방절도사 안사순(安思順)을 안녹산의 종제라 하여 사형에 처하고, 곽분양(郭汾陽)에게 조칙을 내려 그를 대신하게 한 다음, 열흘 만에 다시 이임회(李臨淮)에게 삭방의 군사 절반을 나누어서 동쪽 방면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안사순이 절도사로 있을 때 분양과 임회는 함께 아문도장(牙門都將)으로 있었는데, 두 사람이 사이가 나빠 같은 상에서 음식을 먹는다 해도 늘 서로 흘겨보면서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이제 분양이 안사순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자 임회는 도망가고자 했으나, 마침 그에게 조칙이 내려 분양의 군사 절반을 나누어 동쪽을 토벌하라 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임회는 분양에게 간청하기를, "내 한 몸 죽는 것은 달게 받겠으나 처자식만은 살려 주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분양은 자리에서 달려 내려와 손을 붙잡고 자리로 이끌어 말하기를, "지금 나라가 어지럽고 주상께서는 피난을 다니시는지라, 그대가 아니고서는 동쪽을 정벌할 수 없거늘 어찌 사사로운 원분을 생각할 때이리오."라고 하였다. 이윽고 작별할 때가 되자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충성과 의리로 격려하였으니, 거대한 도적을 평정하게 된 것은 실로 두 사람의 힘이었다.

대저, 평소에 원분이 쌓여 있으면 그의 마음을 짐작하기 어려우며, 원분을 가진 이에게는 반드시 단점만 보이는지라 그의 능력을 알아보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이다. 이 점에서 장보고와 곽분양의 현명함이 비등하다. 정년이 장보고에 투신하면서 틀림없이 생각하기를, '저이는 고귀하게 되었고 나는 비천하니, 내가 몸을 낮추어 그를 높인다면 의당 옛 감정을 가지고서 나를 죽이지는 않으리라.' 하였을 것이다. 장보고가 과연 그를 죽이지 않았으니, 이것은 사람의 일반적인 정서이다. 그리고 임회가 분양에게 죽음을 자청한 것 역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서인 것이다. 한편 장보고가 정년에게 일을 맡긴 것은 오직 스스로 결정한 일이며, 임회에게 일을 맡기게 된 명령이야 천자에게서 나왔던 것이니, 장보고의 경우에 견주어 본다면 분양 쪽이 결단하기가 더 용이했던 것이다.

이처럼 어질고 의로운 마음과 잡스러운 감정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가 잡스러운 감정이 이기게 되면 어질고 의로운 마음이 없어지고, 어질고 의로운 마음이 이기게 되면 잡스러운 사념은 사라지는 것이니, 저 분양과 보고 두 사람은 어질고 의로운 마음이 이긴 데다가 자질이 총명했던 까닭에 마침내 공을 이루었던 것이다.

- 삼국사기(三國史記)의 장보고·정년전(張保皐鄭年傳) -

24.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위의 자발성 여부를 인물에 대한 평가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② 행위 주체의 자질과 일의 성패를 인과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③ 사람의 심리에 작용하는 보편적 원리를 전제하고 있다.
④ 인물이 처한 역사적 사례의 유사성에 착목하고 있다.
⑤ 왕조의 정통성을 규정하는 명분을 강조하고 있다.

25. (가)에서 추론하기 어려운 것은?

① 풍원규는 정년의 귀국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② 풍원규는 장보고와 정년의 평소 관계를 잘 알고 있다.
③ 장보고는 정년을 죽이고 살릴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
④ 정년은 장보고와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⑤ 정년은 귀국 후에 처지가 더 나빠질 여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26. 위 글의 독자를 군주(君主)로 상정할 때, 결미 부분에 덧붙일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그러므로 "남을 이용할 것이요, 남에게 이용당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으니, 적으로 하여금 험난을 감수하고 오게 할 일이지, 내가 위험을 밟고 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② 그러므로 "여우가 죽을 때가 되면 머리를 본래 살던 언덕으로 향하나니, 그 근본을 잊지 않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했으니, 무릇 현사(賢士)는 군자를 찾아 길을 재촉하고 충신은 임금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③ 그러므로 "천시(天時)와 지리(地利)가 인화(人和)만 못하다."라고 했으니, 나라는 복으로써 흥하고 화로써 망하는바, 나라가 흥하려면 백성 대하기를 상처를 위하듯이 하며 나라가 망하는 데 있어서는 백성을 흙 검불과 같이 여기는 것이다.
④ 그러므로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병에는 이로우며 충신의 말은 귀에는 거슬리나 행동에는 이롭다."라고 했으니, 탕 임금과 무왕에게는 직언하는 신하가 있었기에 창성하였고, 걸(桀)과 주(紂)에게는 영합하는 신하만 있었기에 망했던 것이다.
⑤ 그러므로 "나라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 나라가 망하는 것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녕 그 나라가 망할 즈음에 현명한 이를 쓰지 않기 때문이요, 만일 그런 이를 쓸 수만 있다면 한 사람만으로도 넉넉한 것이다.

[27~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仁)은 두 사람입니다. 옛 글자에서는 사람 인(人)을 중첩시켜 썼는데, 그것은 아들 자(子)를 중첩시켜서 손(孫)을 표기한 것과 같습니다. 효(孝)로써 부모를 섬기는 것이 인(仁)이니 자식과 부모가 두 사람이요, 충(忠)으로써 군주를 섬기는 것이 인(仁)이니 신하와 군주 두 사람입니다. 무릇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신의 직분을 다하는 것을 인(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성현들이 인(仁)을 해설할 때 모두 "인(仁)은 사람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맹자』에서 "인(仁)은 사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인(仁)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중용』에서도 "인(仁)은 사람이다. 부모를 친애하는 것이 인(仁)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임금을 아끼고 백성을 보살피는 것 등이 모두 인(仁)이 아닌 것이 없지만, 그 여러 인(仁) 중에서도 부모를 친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의(義)는 ㉠'자신을 선하게 하는 것[善我]'입니다. 의는 소중한 것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어서 인(仁)과는 다릅니다. 응소(應劭)의 『풍속통의』에 "남을 아껴주면 인(仁)이라고 하고, 나를 선하게 하면 의(義)라고 한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야말로 훈고(訓詁)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설명입니다. 어떤 물건을 얻었을 때, 그것을 받아서 내가 선하게 될 수 있으면 받고, 받아서 선하게 될 수 없으면 물리쳐 나를 선하게 하는 데로 귀착하는 것이 곧 의입니다. 의라는 것은 어떤 때는 곁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지 않기도 합니다. 어찌 곁에 있는 사람뿐이겠습니까? 자애로운 아버지라도 어떤 때는 아내와 자식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것이 나에게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仁) 자는 사람을 뜻하는 인(人)을 부수로 하고, 의(義) 자는 자신을 뜻하는 아(我)를 부수로 한 것이니,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보건대, 인의예지는 모두 구체적 사태에서 실천하는 것을 통해 그 명칭이 성립하는 것으로서, "심(心) 속에 있는 이(理)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맹자』의 "인의예지근어심(仁義禮智根於心)" 일곱 글자에 대해서는 바로 조기(趙岐)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뿌리[根]는 초목의 근본입니다. 그 가지와 잎, 꽃과 열매가 아름답고 번성하는 것은 땅 위에서이고, 그 뿌리는 땅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와 잎, 꽃과 열매가 땅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의예지가 심(心)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은 가지와 잎, 꽃과 열매가 땅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맹자는 뿌리 근(根) 자를 빌려서 설명한 것입니다. 만약 "인의예지가 심(心) 속에 있는 뿌리이다."라고 말한다면, 이 뿌리가 발육시키는 대상은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조기는 이 구절을 풀이하여 "네 가지는 그 뿌리가 심(心) 속에 생겨, 그 형색이 얼굴에 나타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설명은 매우 정밀한 것으로 지금 사람이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맹자』의 학문은 오로지 인의(仁義)를 실천하여 호연한 기상을 기르고자 합니다. 따라서 주자 역시 '의를 모은다[集義]'는 것을 선행을 쌓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의를 모으고 선행을 쌓는다는 것은 곧 인의를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인을 실천하고, 내일 한 가지 의를 실천하여, 이에 호연한 기상이 길러지면 얼굴이 윤택해지고 몸이 넉넉해집니다. 따라서 맹자가 그 점을 일러, "그 근본은 심(心)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 인품은 얼굴에 환히 나타난다."라고 하였으니, 요컨대 구체적인 일에서 행하는 것을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만일 인의가 심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이(理)라고 이해한다면, 고기 팔고 술 파는 사람조차도 또한 반드시 얼굴이 윤택하고 몸이 넉넉한 형상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의의 뿌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정약용, 이재의에게 보내는 답장 -

27. 글쓴이가 자신의 견해를 옹호하기 위하여 이용하지 않은 것은?

① 경전의 주해(註解)
② 용어의 원의(原義)
③ 선인(先人)의 권위
④ 일상의 경험적 사실
⑤ 논쟁의 역사적 추이

28. ㉠을 설명하기 위한 사례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선(善)을 행하는 일은 스승에게도 양보하지 않는다.
② 노인을 편안하게 봉양하고 친구를 미덥게 유도하고 젊은이를 진취적으로 포용한다.
③ 선행을 보면 거기에 미치지 못하여 안타까운 듯이 행동하고, 악행을 보면 끓는 물에 들어가듯 여긴다.
④ 자신이 살기 위해 인(仁)을 해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지만, 몸을 바쳐 인(仁)을 이루는 일은 할 때가 있다.
⑤ 배우는 것은 넓게 하고 뜻을 가지는 것은 독실하게 하면서, 절실하게 묻고 가까이 자신의 경우에서부터 미루어 생각한다.

29. 위 글은 이재의의 견해에 대한 정약용의 반박을 담고 있는 편지이다.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이재의가 주장한 바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맹자』에 인의예지가 심(心)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였으니 인의예지를 마음 밖에 있는 것으로 말해서야 되겠는가?
② 맹자께서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하였으니, 신분이 미천한 사람이라 해서 어찌 인의예지의 본성이 없다고 하겠는가?
③ 인의예지를 논하면서 심(心)의 본원이 되는 이(理)를 빼놓는다면, 근본은 간과하고 말단만 논하는 꼴이 아니겠는가?
④ '의를 모은다[集義]'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선행의 간단없는 실천으로 인의예지를 쌓아 호연한 기상을 기르는 것이 아니겠는가?
⑤ 부모에게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인의예지라는 본성이 있어서가 아니겠는가?

[30~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헌법은 검열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1996년 헌법재판소가 영화 검열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릴 때까지 영화에 대한 사전 검열이 버젓이 이루어져 왔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후 '영화 등급보류'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헌법재판소가 2001년 다시 위헌 결정을 내리자, 그 대신 '제한상영가' 제도가 2002년에 도입되었다. 제한상영가 제도의 도입 취지는 다음과 같다. "종전에는 성과 폭력 등의 묘사가 지나친 경우에는 등급 분류를 보류하여 상영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제한상영가 등급을 신설하여 모든 영화에 등급을 부여하도록 하되,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는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하도록 함." 한편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그 내용 및 표현 기법이 18세관람가 기준을 벗어나 과도하게 일반 국민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반사회적인 내용인 경우"에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일정 범위 내의 성 표현물에 대해서는 상영을 허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었다. 하지만 지나친 성 표현물이나 폭력물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하고, 이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주어 가능한 한 그 제작과 상영을 억제하고자 제한상영가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18세관람가 영화는 광고나 상영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일반상영관에서 상영할 수 있음에 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는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해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제한상영가 영화를 비디오 등 다른 영상물로 제작할 수 없으며, 그 제작된 영상물을 상영·판매·전송 또는 대여하거나 시청에 제공할 수 없다. 물론 음란한 영화는 형법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상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제한상영가 등급의 도입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제한상영가 등급의 도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음란하지는 않지만 지나친 성 표현물, 지나친 폭력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반사회적이라고 판단한 표현물의 상영을 제한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검열이라고 주장한다. 성인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를 행정 기관이 '일반상영관에서 자유롭게 보아도 좋은 영화'와 '제한상영관에서 약간 떳떳치 못한 기분으로 보아야 하는 영화'로 구분하는 것은 애매한 잣대에 근거한 ㉠ 후견적 간섭이라는 것이다. 즉,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성인의 볼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또한 영화 제작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행정 기관의 임의적 잣대에 따라 영화적 표현물을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하도록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제한상영가 등급의 도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도 공중 도덕이나 사회 윤리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음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중 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해할 수 있는 성 표현물의 상영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견해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란물은 아니지만 노골적인 성 표현물에 대하여 역겨움을 느끼는 성인이 있을 수 있는데, 18세관람가 등급은 허용하는 표현 범위가 너무 넓어서 위와 같은 영화로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성인을 보호할 수 없다. 둘째, 헌법이 보호하는 표현 중에서도 가치가 낮은 표현은 다른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소적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셋째, 광고적 표현은 상업적 언론으로서, 다른 표현과 비교할 때 민주적 가치나 개인의 인격 완성에 기여하는 바가 적으므로 그에 대한 규제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

한편 제한상영가 등급 자체는 합헌이지만, 제한상영가 등급이 영화진흥법상의 제한상영관 제도와 결합될 경우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현행 제한상영관 제도는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와 선전을 제한상영관 안에서만 게시하되 제한상영관 밖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영화 제작자가 제한상영가 영화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봉쇄할 뿐만 아니라, 제한상영가 영화를 보고자 하는 일반 국민들의 알 권리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한상영가 등급을 둘러싼 이러한 논란은 언론의 자유와 건전한 성도덕의 보호가 충돌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30.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없는 것은?

① 공개된 장소에서의 음란물 상영은 금지되어 있다.
② 제한상영가 영화는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되고 있다.
③ 반사회적 내용의 유무는 영화 등급 분류 기준의 하나이다.
④ 18세관람가 영화와 제한상영가 영화의 관람 허용 대상은 다르다.
⑤ 제한상영가 등급의 도입으로 성적 표현물의 허용 범위가 과거에 비해 넓어졌다.

31. ㉠만을 판단의 준거로 삼고 있는 것은?

① 간통 행위를 처벌해야 하는가?
② 인공 임신 중절 행위를 처벌해야 하는가?
③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타는 행위를 처벌해야 하는가?
④ 법정 전염병에 감염된 환자의 신상을 국가에 신고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해야 하는가?
⑤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한 기업의 환경 담당자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도 처벌해야 하는가?

32. 제한상영가 등급의 도입에 대한 세 견해의 논거를 표로 정리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견 해	논 거	
위헌이라는 견해	○ 다른 형태의 검열이기 때문에 위헌이며, 성인의 볼 권리를 제한한다. ○ 영화적 표현물의 상영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①
합헌이라는 견해	○ 영화적 표현물에 의한 정신적 충격으로부터 성인을 보호해야 한다. ○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이지만, 공익을 위해서는 장소적 제한이 가능하다. ○ 상업적 언론에 대해서는 폭넓은 규제가 인정될 수 있다.	② ③ ④
합헌이지만 제한상영관 제도와 결합되면 위헌일 수 있다는 견해	○ 제한상영관 제도는 영화적 표현물의 광고를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⑤

[33~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최근 우리 시에 나타나고 있는 뚜렷한 현상 가운데 하나는, 근대 문명의 발달에 따라 타자(他者)로 밀려나 있던 것들, 예컨대 자연, 몸, 여성, 감각 등의 범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되찾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문명, 정신, 남성, 이성을 중심으로 진보해 온 근대 기획에 의해 주변부로 물러나 있다가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대두한 탈(脫)근대적 사유의 물결을 타고 시의 중심으로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 가운데, '자연'을 이용 가능한 '자원(資源)'의 차원에서 '스스로[自]' '그러한[然]' 존재라는 본래적 위상으로 되돌리려는 시적 움직임은 가장 적극적이고 활발한 외관을 보여 주었다. 이를 두고 시에서의 '생태적 상상력'의 발현이라고 명명해도 좋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에서의 생태적 상상력은 인간 중심의 도구적 이성이 자연을 비롯한 근대의 타자들을 억압해 왔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미학적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생태적 상상력에 바탕을 둔 시적 성취들은 우리 시대의 가장 현저한 비판 시학이자 대안 시학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생태적 상상력의 시편들은 인간과 자연을 지배와 피지배 관계로 파악해 왔던 인간 중심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인간과 자연이 하나의 평등하고도 긴밀한 관계망 속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표현한다. 이때 인간과 자연은 시적 형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친화한다. 가령 정현종의 <좋은 풍경>이라는 시편은 이 같은 소통과 친화의 속성을 잘 보여 준다.

늦겨울 눈 오는 날
날은 푸근하고 눈은 부드러워
새 살인 듯 덮인 숲 속으로
남녀 발자국 한 쌍이 올라가더니
골짜기에 온통 입김을 풀어놓으며
밤나무에 기대어 그짓을 하는 바람에
예년보다 빨리 온 올봄 그 밤나무는
여러 날 피울 꽃을 얼떨결에
한나절에 다 피워놓고 서 있었습니다.

'밤나무'와 '남녀 한 쌍'은 분명 이성적으로 파악하면 공간적으로 우연히 공존하는 사이일 뿐이다. 하지만 눈 덮인 숲 속에서 벌어지는 남녀의 에로틱한 소통은 자연과 분리된 인사(人事)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을 바라보고 섰던 '밤나무'가 소통과 감응(感應)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밤나무'는 자신의 몸에 기댄 남녀의 몸을 관조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들의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기도 하다. 이때 '밤나무'는 시의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인간과 적극 교감하는 인격적 지위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인간과 자연 사이의 조화로운 소통과 친화를 일러 시인은 '좋은 풍경'이라 명명했을 것이다.

결국 이 시편은 인간과 자연의 본능적 교감을 통한 원초적 조화의 경험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또한 인간으로 하여금 우주적 생명의 자기 전개라는 거대한 운동에 참여케 함으로써 흔치 않은 심미적 경험을 가져다 준다. 칠레의 국민 시인인 파블로 네루다의 다음 시편에서도 우리는 그 같은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내 생명은 흙,
흙이 우리의 핏줄 속에서 자랄 때
우리는 자라고
흙이 우리의 핏줄 속에서 죽으면
우리도 죽는다.

생명이 '흙'으로부터 왔다는 <창세기> 증언의 반복으로 보이는 이 시적 진술은 '흙'이라는 무기물과 '핏줄'이라는 생명의 징후가 근원에서 맞닿고 있음을 알린다. 먹을거리를 생산하거나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는 '흙'에 대한 공리주의적 태도는 멀찍이 달아나 있다. 이때 '흙'은 만물의 어머니인 '가이아(Gaia)'로 비로소 태어난다. 따라서 우리는 '흙'이 죽으면 우리도 죽는다는 생명의 대연쇄에 대한 감각을 이 시편을 통해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생태적 상상력이 단순한 환경 운동이나 문명 비판의 시각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생명이 공존하고 공생하는 근원적 생명의 상태를 그려 보이려는 미학적 구심점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사례일 것이다. 이때 시는 우주적 연관에서의 인간 존재의 의미를 명상할 때 가장 적절하고도 긴요한 양식으로 각인되며, 예술적 언어 조직으로서의 양식적 특수성은 그 중요성이 반감된다.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경험들은 근대 문명이 부여해 온 물질적이고 선형적인 인간 중심의 욕망을 서서히 탈색시키면서, 삶과 세계의 신비를 수용할 수 있는 상상력을 풍부하게 길러 준다. 나아가 인간을 사회적 관계가 아니라 우주적 연관에서 폭넓게 바라보게 한다. 또한 근대 문명이 '나'와 '나 아닌 것'에 대한 분별을 기초로 하여 발전해 온 것에 비해, 이러한 시적 경험들은 '나'와 '나 아닌 것' 사이의 거리를 지우면서, 그것들끼리의 불가분리성 혹은 상호 의존성을 강하게 감염시킨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한 알의 모래와 한 송이의 들꽃 속에서 온 세계와 무한을 본다."라고 노래한 바 있다. 우리가 보았듯이, 인간과 자연이 에로스의 충동으로 이루어 내는 깊은 우주적 교감, '흙'이 죽으면 우리도 죽는다는 엄연한 생태적 진실에 대한 신비로운 경험, 이것은 시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축복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시를 읽고 즐기는 가장 종요로운 까닭이다.

33. 위 글이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자아와 사물의 분별을 바탕으로 한 공존과 상생의 시각
② 도구적 이성이 억압해 왔던 타자들을 복원하려는 움직임
③ 합리성을 넘어서는 신비로운 경험에 대해 열려 있는 자세
④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물 속에서 우주의 질서를 음미하는 태도
⑤ 인간과 자연이 유기체적으로 상호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관점

34. ㉠에 대한 비판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시의 계몽적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상상력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② 구체적인 사회 현실을 형상화하고 있는 시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③ 시에서 자연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근대 문명과의 균형을 놓치고 있다.
④ 시에 자기 표현과 자기 성찰이라는 존재론적 특성이 있다는 것을 도외시하고 있다.
⑤ 시에서 주제의 문제를 강조함으로써 형식미를 중시하는 시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고 있다.

35. 위 글의 논지를 바탕으로 <보기>의 시를 해석하고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비

정지용

돌에
그늘이 차고,

따로 몰리는
소소리 바람.

앞섰거니 하여
꼬리 치날리어 세우고,

종종 다리 까칠한
산새 걸음걸이.

여울 지어
수척한 흰 물살,

갈갈이
손가락 펴고.

멎은 듯
새삼 돋는 빗낯

붉은 잎 잎
소란히 밟고 간다.

① 자연을 생명의 근원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비극적인 세계관으로 인해 생명 현상의 활력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② 자연에 대한 절제된 묘사를 보여 주고 있지만, 인간과 자연 사이의 거리로 인해 유기체적 연관성을 놓치고 있다.
③ 자연에 대한 신비적 경험을 다양하게 보여 주고 있지만, 형이상학적 접근으로 인해 사물의 구체성을 빠뜨리고 있다.
④ 자연에 대한 인간의 소통과 친화를 적극적으로 보여 주고 있지만, 문명 비판적 시각으로 인해 인간 중심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⑤ 자연 사물로 하여금 스스로 말하게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지만, 화자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생태적 상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36~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94년 미국에서 수행된 한 연구에서, AZT(azidothymidine)를 임신 중에 장기간 복용하면 HIV(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가 임산부에게서 태아로 전이되는 위험이 ⅓로 감소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미국 보건 당국과 세계보건기구는 후속 실험을 아프리카에서 수행하도록 지원하였다. 이 실험의 피험자는 HIV에 감염된 아프리카 임산부들이었다. 이 실험에는 피험자 일부에게 위약(僞藥)을 주어 그 결과를 AZT를 복용한 피험자 집단과 비교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1997년 미국의 저명한 의학 학술 잡지의 편집장인 엔젤은 이 사실을 밝히면서, 이 실험의 비도덕성을 비판했다. 시민 단체도 실험을 위해 효과가 입증된 AZT 대신 위약을 HIV 감염자들에게 주어 신생아들이 감염된 채 태어나도록 방치한 것은 비도덕적 행위라고 격렬하게 비난했다. AZT가 일단 바이러스의 전이를 막는 데 효과적인 치료제로 증명된 이상, HIV에 감염된 임산부들 모두를 위한 표준적인 치료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그 실험이 실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HIV에 감염된 아프리카의 여성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결코 AZT를 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자신들을 변호했다. 그 여성들은 이전의 상태보다 더 악화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엔젤과 시민 단체는 위약을 사용하는 실험이 도덕적인 이유 때문에 미국 여성들에게는 오래전부터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의료 연구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이중적인 기준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부정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심의 기구의 승인을 받아 실험을 했으며, 피험자인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며 비난을 수용하지 않았다. ㉡개발도상국 보건 관리들도 미국의 윤리적 기준을 아프리카에 적용하는 것은 '윤리적 제국주의'라며 연구자들 편을 들었다. 연구 지원 기관에서도 위약-대조군 실험을 통해 투약 기간을 단축해도 전이율이 절반으로 감소된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매년 출산 전후의 전이에 의해 HIV에 감염되는 30만 명의 아이들 중 15만 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또한 위약을 사용하지 않는 AZT-대조군 실험에 비해 위약-대조군 실험은 더 짧은 시간에 더 적은 수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시될 수 있고, 실험이 성공하면 아프리카 각국의 정부는 HIV에 감염된 모든 임산부들에게 더 적은 용량의 AZT 치료 요법을 제공할 것이라며 연구자들을 옹호했다.

이에 대해 엔젤과 시민 단체는 위약-대조군 실험이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결과를 증명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다른 실험 설계로도 동일한 결과를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 실험을 통해 더 적은 용량의 AZT로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해도, 80달러에 달하는 AZT 요법은 아프리카 인 평균 의료 비용의 11배에 달하기 때문에, HIV에 감염된 아프리카의 가난한 임산부 모두에게 AZT가 제공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격렬한 논쟁 끝에 1998년 미국 보건 당국은 임신 기간의 마지막 4주 동안 AZT를 복용하면 전이율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발표하면서 그 연구를 중단시켰다.

36. ㉠의 생각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실험이 성공한다면 AZT 투약 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② 실험이 피험자의 상태를 개선시켜야 할 의무는 없다.
③ 고가의 AZT를 제공하는 것은 피험자들에게도 유익하다.
④ AZT-대조군 실험에 비해 위약-대조군 실험이 더 효율적이다.
⑤ 실험의 목표는 HIV에 대한 AZT의 약효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

37. ㉡을 통해 알 수 있는 '개발도상국 보건 관리들'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의학 연구는 각국의 현실을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② 선진국의 의학 실험을 유치하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③ 소외된 사람들에게 의학 연구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
④ 목적이 아무리 고상해도 인간을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선진국에서 해서는 안 되는 실험은 개발도상국에서도 해서는 안 된다.

38. 위 글의 위약-대조군 실험에 반대하는 편에서 <보기>와 같이 계획한 실험이 위약-대조군 실험보다 더 윤리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할 때, 그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HIV에 감염된 아프리카 임산부들 가운데 실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이들에게 실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는다. 그리고 동의한 이들을 무작위 배정 방법으로 AZT 표준 기간 투여 집단과 단기 투여 집단으로 분류한다. 실험 계획에 대해 심의 기구의 승인을 획득한다.

① 의학 실험은 심의 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의학 실험은 피험자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의학 실험에서 피험자 선정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④ 의학 실험은 제한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⑤ 의학 실험에서 피험자의 위험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39~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회적 연결망 이론은 사회를 사람들 사이의 관계들의 총체로 파악한다. 사람들은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사회적 연결망은 이렇게 형성된 관계들의 망이라고 정의된다. 연결망은 행위자들, 곧 결절점(node)들과 그들 사이의 관계들, 즉 연결 고리(link)들로 구성되며, 결절점들 사이의 연결되지 않은 부분은 구조적 공백으로 불린다.

연결망은 기회와 정보의 공유, 상호 통제, 사회적 승인, 협력과 유대 등의 연결망 효과를 만들어 내며, 구성원들은 이 효과를 공유한다. 연결망 효과의 핵심적 원천은 구성원과 비구성원 간의 구별과 차별이다. 연결망으로 결속된 행위자들은 그 구성원들이 가진 부와 권력과 평판 등에 접근할 수 있다. 어떤 연결망이 강한 연결망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연결망에 속한 구성원과 비구성원 사이의 구별이 분명해야 한다.

그렇지만 연결망은 구별과 차별을 전제하기 때문에 외부의 비구성원들이 그것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하거나 침묵할 때, 또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 그 효과를 낼 수 있다. 어떤 연결망이 그 구성원과 비구성원을 뚜렷하게 차별할 때, 연결망에서 배제되는 행위자들은 적극적으로 대항 연결망을 형성하거나 소극적으로 연결망에 대해 반발이나 적대의 반응을 보이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그 연결망의 효과에 대응하게 된다.

연결망 효과의 또 다른 원천은 연결망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 인정이다. 연결망은 행위자들 사이의 연결들의 집합체로서, 구성원들 사이에는 상호 인정과 의사소통이 일어난다. 이것을 통하여 구성원들 사이에는 기회가 공유되고 정보가 흐르며 신뢰가 형성되고 협력이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연결망의 정체성과 경계를 유지하려는 자발적인 통제를 행사한다. 그렇지만 통제의 강화는 의사소통을 경색시키고, 이것은 연결망의 분열 또는 파편화로 이어져 사실상 연결망 효과를 약화시키게 된다.

(나) 사회적 연결망 이론은 구직 및 취업에 관한 연구에 유익하게 활용된다. 미국 보스턴 지역의 전문 기술직, 관리직 취업자의 구직 활동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한 그라노베터는 구직과 취업 과정에서 사회적 연결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취업 과정에서 사회적 연결망은 정보를 유통시키고 주요 행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통로 구실을 하며, 또한 구성원에 대해 사회적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준다. 구직자들은 연결망으로부터 직장에 대한 여러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고용주들은 지원자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그라노베터에 따르면, 취업 과정에서는 약한 연결이 더 효과적이다. 약한 연결은 친밀도가 낮고 지속 기간이 짧으며 호혜적 서비스가 적은 연결을, 강한 연결은 그 반대의 것을 의미하는데, 취업 과정에서는 약한 연결이 더 넓은 범위의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취업자에게 더 큰 도움을 준다. 즉 약한 연결에서는 그 구성원들이 정보를 중첩적으로 공유하는 정도가 작기 때문에 구직자와 고용주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편 한국의 취업 과정에서는 사회적 연결망이 독특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전문 기술직, 관리직 취업자는 연결망을 통해 취업 정보를 얻는 비율이 낮으며, 아는 사람의 주선보다 시험을 통해 취업하는 비율이 높다. 반면 생산직 취업자는 공식적 경로보다는 개인적 연고를 통해 취업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 단순 사무직이나 노무직 취업자도 직접 접촉보다 연결망을 통해 취업하는 정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는 취업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연결망을 활용하는 정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는 취업자들이 선호하는 직장이 사회적으로 뚜렷하게 서열화되어 있고, 또한 직장의 고용주가 선호하는 취업자의 출신 학교와 전공도 사회적으로 뚜렷하게 서열화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 즉 기업의 규모와 평판은 공개된 취업 정보이며, 출신 학교와 전공은 취업자의 여러 특성에 대한 표지 구실을 한다는 것이다.

39. 위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① 행위자들 사이에 구조적 공백이 없는 연결망이 더 큰 연결망 효과를 낳는다.
② 현대 사회에서는 약한 연결보다 직접 접촉이 행위자들에게 더 큰 도움을 준다.
③ 비공식적 관계에 기초한 연결망은 사회의 분열과 파편화를 초래하며 공정성을 해친다.
④ 집단 경계가 뚜렷하고 통제가 강력한 연결망이 구성원들에게 더 많은 정보와 자원을 제공한다.
⑤ 사회적 연결망이 비구성원들로부터 정당성을 승인받지 못하게 되면 그 구성원들에게 주는 이익이 감소한다.

40. 밑줄 친 용어의 문맥적 의미가 유사한 것끼리 짝 지어진 것은?

(가)		(나)
① 결절점	-	직접 접촉
② 연결 고리	-	공식적 경로
③ 구조적 공백	-	약한 연결
④ 연결망 효과	-	사회적 보증서
⑤ 상호 인정	-	아는 사람

41. 위 글에서 추론한 것으로 타당한 것은?

① 강한 연결은 다양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취업 및 고용 과정에서 연결망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준다.
② 한국 사회에서는 전문직 취업과 관련하여 학교 및 기업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약한 연결의 역할을 대신한다.
③ 고용주가 연결망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획득한 정보는 지원자를 효율적으로 선발하고 활용하는 데 방해가 된다.
④ 미국 사회에서 전문 기술직 구직자들은 사회적 연결망을 통하기보다는 공식화된 경쟁적 채용 절차를 거쳐 취업한다.
⑤ 미국 사회에서 구직 및 취업 과정에 동원되는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승인의 정도는 한국 사회에서의 그것보다 견고하지 못하다.

[42~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과학은 현상이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기술할 뿐 아니라, 왜 발생하는가를 묻고 답한다. '왜?'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 설명이다. 20세기 전반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이상적인 과학적 설명은 법칙과 초기 조건으로부터 현상을 연역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연역적 법칙 포섭 모형'이라고 불리는 이 설명 모형에 따르면, 예컨대 일식 때 하늘이 어두워지는 현상은 만유인력의 법칙, 빛의 직진 원리 등[법칙]과 지구, 달, 태양의 상대적 위치가 언제 어떠했다고 말하는 진술[초기 조건]로부터 연역함으로써 설명된다. 즉 법칙들과 초기 조건들이 모두 만족된다면, 현상은 그것들로부터 개연적으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유도되어야 한다.

(가)

법칙들	:	$L_1, L_2, L_3, \cdots$	(설명항)
초기 조건들	:	$C_1, C_2, C_3, \cdots$	(설명항)
			↓ 연역
현상	:	E	(피설명항)

ⓐ 이때 현상 E가 이미 발생하였다면 E의 연역은 곧 E에 대한 '설명'이 되지만, E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E에 대한 '예측'이 된다.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주변에서 흔히 발견되는 다양한 형태의 설명들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였다. 예컨대 '나무의 뿌리가 물이 있는 방향으로 뻗는 것은 수분을 더 잘 흡수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동학혁명이 일어난 것은 당시 핍박받고 있던 농민들이 외세를 축출하고 탐관오리들을 척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다양한 설명 유형들은 연역적 법칙 포섭 모형으로 재구성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설명들은 비과학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칙과 초기 조건으로부터의 모든 연역이 곧바로 설명이 되는 것은 아니다. 깃대가 땅 위에 수직으로 서 있고 태양이 그 깃대에 빛을 비추어 그림자를 만들었다고 하자. 이때 우리는 깃대의 높이, 태양의 위치,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 및 빛의 직진 원리로부터 그 깃대의 그림자 길이를 연역해 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림자의 길이, 태양의 위치, 그리고 동일한 정리 및 원리로부터 우리는 깃대의 높이를 연역할 수 있다. 그렇다면 ⓑ 이 두 연역은 연역적 법칙 포섭 모형의 요건들을 만족시키므로, 모두 과학적인 설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둘 모두를 설명이라 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깃대 높이를 그림자 길이의 원인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역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법칙으로부터의 연역'이라는 설명에 대한 자신들의 통찰을 유지하기 위해서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연역적 법칙 포섭 모형이 진정한 설명이 되기 위한 여러 조건들을 덧붙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42. (가)의 설명 모형에 부합하는 사례는?

① 기린의 목은 왜 길까? 목이 길면 높이 있는 나뭇잎을 다른 초식동물보다 더 잘 따먹을 수 있어서 생존에 유리하다. 기린의 목은 이러한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 길어진 것이다.

② 얼음물로 가득 찬 유리잔 표면에는 왜 습기가 찰까? 얼음물이 든 유리잔의 온도는 주변 공기 온도보다 훨씬 낮은데, 공기 중의 수증기는 차가운 유리잔의 표면과 접촉하면 액체로 응결되기 때문이다.

③ 인간에게 왜 폐가 있는가?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키려면 산소가 꼭 필요한데, 만약 인간에게 폐가 없다면 공기에서 산소를 추출할 수 없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폐가 존재한다.

④ 현대 영어에는 왜 라틴 어에서 온 단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가? 윌리엄 1세가 영국을 정복한 후, 노르만 족 상류층이 사용하던 프랑스 어가 영어에 유입됨으로써 라틴 어의 흔적이 많이 남게 되었다.

⑤ 소나기가 내리는 날 벼락이 심하게 쳤다. 왜일까? 벼락은 공기 중의 전하를 띤 물방울들이 모여 있다가 순간적으로 전하들이 지상으로 떨어질 때 발생한다. 그러므로 공기 중의 물방울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모인 먹구름이 있을 때 벼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43. ⓐ, ⓑ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한 것끼리 묶인 것은?

<보 기>

ㄱ. ⓐ: 설명과 예측이 동일한 논리적 구조를 가짐을 의미한다.
ㄴ. ⓐ: 설명이 아닌 예측도 가능하고, 예측이 아닌 설명도 가능함을 의미한다.
ㄷ. ⓐ: 초기 조건과 피설명항을 서로 바꾸면, 설명은 예측이 되고 예측은 설명이 됨을 의미한다.
ㄹ. ⓑ: 모든 연역은 설명이지만, 모든 설명이 연역은 아님을 의미한다.
ㅁ. ⓑ: 원인은 결과를 설명하지만, 결과는 원인을 설명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① ㄱ, ㅁ
② ㄴ, ㄹ
③ ㄷ, ㅁ
④ ㄱ, ㄴ, ㄹ
⑤ ㄷ, ㄹ, ㅁ

[44~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지난 세기 언어는 인문학적 상상력의 중심이었다. 사피어, 비트겐슈타인 등의 언어 연구를 통해, 인간의 언어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서술적' 매체라기보다는 일정 정도 ㉠세계를 '구성'해 내는 '조형적' 매체라는 깨달음이 부각되었다. 각각의 문화는 그것들이 내장하고 있는 언어 체계로 정의되며,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세계상을 갖게 된다는 '언어 상대주의'의 명제들은 그러한 언어관의 변모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언어 상대주의의 명제들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20세기 중·후반부터 언어의 보편성과 선천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대두했기 때문이다.

(나) 20세기 초 인류학자들은 모든 원시 종족들에게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넘어, 추상적 개념과 보이지 않는 실체, 복잡한 추리의 과정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진 '완전한' 언어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모든 인간 사회에 언어가 있다는 사실은 언어가 인간의 선천적 능력과 관련 있다고 추측할 단서가 된다. 그러나 보편성 자체가 선천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수십 년간 어떤 여행자도 언어 없는 부족을 만날 수 없었던 것처럼 요즘의 인류학자들은 TV나 코카콜라가 없는 인간 집단을 발견하기 어렵다. TV나 코카콜라처럼 인간의 언어도 보편적 용도 내지는 유용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 그러므로 언어가 선천적 능력의 일종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논거가 필요하다. 가장 인상적인 자료는 어린이들의 언어 습득 능력과 관련된 것들이다. 성인들과 달리 대략 10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어느 언어권에 놓이더라도 어려움 없이 그 언어에 숙달할 수 있는데, 이때 어린이들은 그 언어를 단순히 반복하는 능력 이상의 것을 구사한다고 알려져 있다. 어린이들은 대단히 불충분하고 불완전한 언어 자료로부터 훨씬 복잡하고 문법적으로 정연한 언어를 '창조적'으로 만들어 내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인상적인 예가 '크레올화(creolization)'라는 현상이다.

(라) 크레올화란, 다른 언어로부터 일관성 없이 차용한 단어들과 극도로 단순한 문법을 가지고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수행하는 임시변통 언어인 피진(pidgin)이, 문법적으로 견고하고 표현력이 풍부한 완전히 새로운 언어인 크레올(creole)로 변화되는 현상이다. 본래 피진은 식민지 농장의 노예나 무역업자, 여행자 같이 공통의 언어 없이도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예를 들면, "어제 나 개 물다"와 같은 표현이 피진의 어법인데, 여기서는 문법 대신 단어들 간의 연상이나 대화의 맥락 등이 의미를 해석하는 주된 자원이 된다. 흥미로운 것은 성인들은 피진을 크레올로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크레올은 피진의 언어 환경에서 자라난 어린이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어린이들이 어떤 훈련이나 외부의 도움 없이 크레올을 만드는 것은 그들의 정신 내부에 언어적 알고리즘 같은 것이 미리 있다고 가정하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마) 만약 이러한 선천성의 가설이 타당하다면 언어의 상대성에 대한 강조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각각의 역사적·문화적 조건에 의해 언어가 서로 다른 어휘와 문법적 구조를 가진다 해도, 그것들의 심층에서는 선천적이며 보편적인 기제가 작동할 수 있다고 시사해 주기 때문이다. 언어의 선천성에 대한 깨달음은 언어·문화적 차이와 생물학적 상수 항 간의 새로운 균형을 모색하라는 과제를 남겨 준다.

44. (가)~(마)의 중심 화제와 내용 요약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가) : 언어 상대주의에 대한 의문 — 언어의 조형성과 연관된 언어 상대주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② (나) : 언어의 보편성과 선천성 — 모든 사회에 언어가 존재하지만 그런 보편성이 곧 선천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③ (다) : 언어의 선천성 — 어린이들이 어떤 언어든 습득할 수 있는 것은 크레올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④ (라) : 언어의 선천성의 증거 — 피진에 노출된 어린이가 크레올을 발달시켜 가는 것은 선천성의 증거가 된다.
⑤ (마) : 새로운 균형의 필요성 — 역사적·문화적 차이의 바탕에 선천적 언어 기제가 깔려 있다는 각성을 통해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한다.

45. 피진과 크레올에 대한 진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진이 없어도 크레올은 만들어질 수 있다.
② 크레올을 이해하는 어린이는 피진도 이해할 수 있다.
③ 피진을 쓴다고 해서 모국어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④ 크레올에 비해 피진의 의사소통은 상황에 많이 의존한다.
⑤ 크레올은 인간의 선천적 언어 습득 능력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다.

46. ㉠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대단히 복잡한 구조물로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한정된 언어 정보만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다.
② 언어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 보면, 친숙하고 편리한 것처럼 보였던 일상 언어의 이면에 매우 복잡한 문법 체계가 숨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언어는 순수한 본능이 아니다. 학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기술과도 다르다. 어린이에게는 술을 빚고 빵을 만들려는 본능적 경향이 없는 반면, 그들의 지껄임에서 볼 수 있듯이 말하려는 본능적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④ 우리는 자연의 다양한 모습을 분간하여 언어로 세밀하게 그려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 자체가 미리 그런 식으로 분간되어 있기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언어에 의해 미리 설계된 선을 따라 자연을 분간하여 바라보는 것이다.
⑤ 북극권 언어에 눈의 형태나 색깔을 뜻하는 어휘가 상대적으로 많다 해도,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북극권에 사는 사람들은 눈에 포착된 사물의 다양한 모습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였을 뿐이며, 이는 종마를 사육하는 사람들이 말[馬]에 관한 단어를 풍부하게 가진 것과 마찬가지이다.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근대 운동학의 토대를 마련한 갈릴레오는 정지 상태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상태의 역학적 차이를 그 상태 내부에서는 발견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에게 파리와 나비가 날아다니고 금붕어가 헤엄치는 어항이 있는 방 안에 있다고 상상해 보라고 한다. 이 방은 사실은 큰 배의 선실이다. 이제 갈릴레오는 이런 선실의 모든 상황이 배가 정지해 있거나 일정한 속도로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거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파리와 나비는 배가 움직이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날아다닐 것이고 금붕어도 유유히 헤엄칠 것이다. 실제로 지구는 엄청난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하고 있지만 ㉠ 지구가 돌아서 어지럽다고 느끼는 사람은 없다. 물론 지구의 자전과 공전은 실은 가속 운동이지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지구 가속의 효과는 매우 작으므로, 이 사실은 등속 운동하는 물리계, 즉 관성계에 대한 갈릴레오의 논점을 잘 예시해 준다. 결국 갈릴레오에 따르면, 등속으로 운동하는 물체는 자신의 속도는 알 수 없으므로, 물리적으로 의미 있는 속도란 자신에 대해 측정한 다른 물체의 상대 속도일 뿐이고 어떠한 기준점도 '초월한' 속도란 정의하기조차 어렵게 된다.

(나) 라이프니츠는 등속 운동에 대한 갈릴레오의 생각을 물체 사이의 거리 관계에까지 밀고 나갔다. 어떠한 기준점도 초월한 속도가 물리적으로 무의미하다면, 어떠한 기준점도 초월한 위치 개념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위치란 속도와 마찬가지로 항상 어떤 특정 물체로부터의 상대 거리로 주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시간은 사건들의 선후 관계에 의해 주어지며, 공간이란 매 시각마다 '동시(同時)'에 발생한 사건들 사이의 거리 관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다) 이에 비해 뉴턴은 운동을 객관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공간 척도와 시간 척도를 원했다. 이를 위해 뉴턴은 '절대적인 의미로 정지'한 공간을 설정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운동의 '절대 속도'는 절대적으로 정지한 그 공간에 대해 정의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양이 된다. 이는 마치 해수면이 높이의 절대 기준이라고 가정하면 산이나 빌딩의 높이가 절대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갈릴레오의 논점을 받아들이면서도 공간의 성격에 대해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두 입장을 보게 된다.

(라) 뉴턴의 제자였던 클라크는 스승을 대신하여 라이프니츠와 논쟁을 벌였다. 클라크는 회전 운동과 같은 비관성 운동을 동원하여, 공간이 실체로서 절대적으로 존재함을 옹호하려고 했다. 손잡이가 없는 양동이가 빙글빙글 돌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만약 양동이가 비어 있는 상태로 돌고 있다면 우리는 원칙적으로 양동이가 돌고 있는지 아니면 양동이를 제외한 나머지가 돌고 있는지를 판별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양동이에 물이 담긴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우리는 양동이의 물이 바깥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관찰함으로써 돌고 있는 것이 양동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제 클라크는 이 지점에서 양동이의 물이 어디에 대해 회전하고 있느냐고 물어볼 수 있고, 그 답은 라이프니츠가 부정했던 절대 공간이라는 것이다. 일단 논쟁은 이 단계에서 절대 공간이 실재한다는 쪽으로 정리된 것처럼 보인다.

(마) 하지만 논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9세기에 이르러 마흐는 저 멀리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이 회전 운동과 같은 비관성 운동에만 작용하는 어떤 특별한 힘을 가진다고 가정하면, 구태여 절대 공간을 상정하지 않고도 회전하는 물의 쏠림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의 핵심은 ㉡ 만약 전 우주에 물이 든 양동이만 있고 그 상태에서 양동이가 돌고 있다면 물은 바깥쪽으로 쏠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런 실험을 직접 해 볼 수는 없지만, 마흐의 주장은 라이프니츠의 견해가 비관성 운동에 대해서도 정합적 해석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47. (가)~(마)의 내용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진술로 바르지 않은 것은?

① (가)는 (나)에서 새로운 주제에 적용되어 발전되고 있다.
② (나)와 (다)는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③ (다)는 (가)를 근거로 하여 (마)로 발전되고 있다.
④ (라)는 (나)를 비판하고 (다)를 강화하고 있다.
⑤ (마)는 (라)를 비판하고 (나)를 옹호하고 있다.

48. ㉠에 대한 <보기>의 진술 중에서 옳은 것끼리 묶인 것은?

<보 기>

ㄱ. 지구의 가속 운동이 역학적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ㄴ.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 운동의 비관성 효과가 작기 때문이다.
ㄷ. 갈릴레오의 예에서, 금붕어가 유유히 헤엄치는 것에 대응된다.
ㄹ. 만약 지구가 절대 공간에서 움직이는 관성계라면, 어지럼을 느끼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49. 마흐가 ㉡과 같이 주장하게 된 근거로 적절한 것은?

① 물의 회전 운동이 비관성 운동이기 때문이다.
② 회전하는 양동이는 공간이 상대적임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③ 양동이와 물 사이의 위치 관계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④ 회전하는 물을 바깥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⑤ 속도의 상대성에 대한 갈릴레오의 논점이 양동이의 물에는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50. 위 글을 토대로 <보기>를 분석한 것으로 바르지 <u>않은</u> 것은?

<보 기>

영희는 서울에서 대전까지 시속 100km로 달리는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공을 위로 던졌다가 다시 받는 놀이를 했다. 철수는 그 동안 내내 영희 옆자리에 앉아 물이 담긴 종이컵을 빙빙 돌렸다.

① 갈릴레오의 견해에 따르면, 태양계를 기준으로 할 때 영희의 이동 속도는 시속 100km 이상이다.
② 라이프니츠의 견해에 따르면, 기차를 기준으로 할 때 영희의 공은 상하 운동만 했다.
③ 뉴턴의 견해에 따르면, 절대 공간을 기준으로 할 때 영희가 이동한 거리는 서울과 대전 사이의 거리와 같다.
④ 클라크의 견해에 따르면, 절대 공간을 기준으로 할 때 철수의 종이컵에 담긴 물은 바깥쪽으로 쏠린다.
⑤ 마흐의 견해에 따르면, 영희를 기준으로 할 때 철수는 여행 내내 영희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